

# 해남서 마한시대 ‘이동식 아궁이’ 토제품 발굴 주목

### 읍호리 고분군 조리용 토기 동시 출토...국내 최초 사례 AD 5세기 집중 조성...道 문화유산 승격지정 신청 계획

해남군 읍호리 고분군에서 흙으로 만든 이동식 아궁이가 출토되면서 삼국시대 식생활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로 파악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동식 아궁이 토제품은 그동안 가야 또는 신라권역 등지에서 주로 출토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

토제품은 높이 31.6cm, 너비 41cm, 술집이 직경 22.8cm 크기이며 실제 사용 가능한 크기로 제작됐다. 외면은 격자(바둑판) 문양이 새겨졌고, 뒷부분엔 연기가 나가는 연통이 함께 만들어진 일체형이다.

전북 군산 여방리 유적에서 유사한 이동식 아궁이가 출토됐으나 미니어처로 제작됐으며, 100년 정도 늦은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출토 유물의 가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함께 출토·복원된 5점의 유물도 물동이와 항아리, 바리 등 모두 부엌 조리용 토기로 이동식 아궁이와 조리용

토기세트가 함께 출토된 경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는 최초의 사례다.

조사기관인 (재)대한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발굴된 유물들은 죽은 자의 사후세계관을 반영하는 사료로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 읍호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중 조사지역 외 주변에서 훼손된 상태로 확인된 석과 1기를 발견, 훼손된 매장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마한시기의 유사상식석판(무덤방) 1기와 고려시대 도광모 1기가 확인됐으며 총 19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유사상식석판은 판판한 돌을 잇대어 세워 만든 무덤방의 일종으로 상자 모양과 닮았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사상식석판은 길이 28.6cm, 너비 4.6-7.2cm, 깊이 3.2cm 규모로 짜여 졌다. 구조는 토기를 깨뜨려 바닥에 깔고 판판한 돌을 세워 이어



해남군 읍호리 고분군에서 흙으로 만든 이동식 아궁이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됐다. 사진은 이동식 아궁이가 출토된 고분(오른쪽)과 복원된 아궁이와 조리기구 모습. <해남군 제공>



붙인 형태로 최근 해남지역에서 발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독특한 종류의 무덤이다.

무덤방 바닥에 깨진 상태로 확인된 토기 조각을 복원한 결과, 마한계 이동식 아궁이와 함께 부엌 조리용 토기(물동이 2점, 작은 항아리 2점, 바리 1점)로

밝혀졌다.

이번 발굴은 훼손된 매장유산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발굴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

또한 고분군은 기원후 5세기에 집중 조성된 고분군, 토기(가마터, 입대목)의 레구조물 등 마한에서 백제로의 이행과

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고분군은 올해 전남도 문화유산 승격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분군을 비롯해 해남반도에 수많은 마한 관련 문화재가 밀집 분포했다는 것은 해남이 마한시기

해양문화의 요충지이자 마한의 중심지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라며 "고분군은 범위가 광대해 도굴 및 도괴의 훼손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지속적인 학술 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유치

### 이사회 만장일치...내년 6월 20-22일 개최

완도군이 내년 6월에 열릴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31일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벨기에 다머(Damme)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슬로시티 국제조정위원회'에 20개국,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도시로 완도군이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2025년도 시장 총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총회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시장 및 슬로시티 네트워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정책 공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33개국, 286개 도시(한국 17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순대현 국제슬로시티연맹 부회장은 "슬로시티 완도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

광의 중심지로 시장 총회 개최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정위원회에 참석한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와 세계 슬로길 제1호가 있는 대한민국 완도군은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슬로시티의 표본"이라며 총회 개최 희망을 적극 피력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주요 행사가 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슬

로시티 완도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완도군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는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을 증진하는 완도군의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 정책이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무안 일로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 '청신호'

### 국비 42억 확보...청년문화센터 건립·노후 공장 리뉴얼

무안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일로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패키지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군은 지방비를 포함한 총 60억 원을 투입해 1992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갖춘 일로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농공단지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57억 원을 투입, 현재 사용 중인 식당과 관리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 다목적 회의실, 공유오피스, 동아리 활동실과 관리사무실을 조성한다. 또한 2층 1동을 신축해 1층에는 식당과 카페, 체력단련실, 2층에는 13실 규모의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는 10개의 입주 업체가 참여하고 노후된 공장 시설 보수와 복직 공간 정비에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일로농공단지협의회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적극 노력했으며, 사업 후에도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공공도서관, 보건소, 인근 5개 마을과의 협약도 선제적으로 체결했다.

김수현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로농공단지의 부족했던 편의시설과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함평나비축제 대비 '20만 나비 사육' 총력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위해 축제의 주인공인 나비 사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31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되는 제26회 축제 기간 동안 대표 나비인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17종 20여만 마리의 나비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인다.

나비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사육 온실에서 먹이식물, 실내 온·습도 시설을 활용해 집중 사육하고 있다. <사진> 농업기술센터는 축제 기간에 나비 성충 뿐만 아니라 알, 애벌레, 번데기 우화 장면까지 다채롭게 전시할 계획으로 올해 축제를 명실상부한 복합생태체험 축제로 운영할 방침이다./함평=김연수 기자

## 나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1·2호 탄생

###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는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의 1·2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31일 밝혔다.

40여년간 나주에서 농사를 지어온 이모(76)씨는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 활동이 어려워져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농업에서 은퇴하고 은퇴직불금 사업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 씨는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1천㎡ 미만 농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를 매도해 매도대금을 일시에 지급 받았으며, 추가로 매월 7만 원(월 50만원/ha)씩 은퇴직불금을 9년간 받는다.

이 씨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니 농업인으로서의 소득은 줄겠지만, 은퇴직불금으로 보전 받으니 큰 걱정은

없다"며 "농업에서 물러나면서 농지가 필요한 이에게 농지를 물려주게 돼 뜻깊다"고 첫 가입자가 된 소회를 밝혔다.

은퇴를 했지만 농지를 당장 매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자 조 모(77)씨는 보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 매월 58만 원, 은퇴직불금 매월 10만 원(월 40만 원/ha), 연간 임대료 60만 원을 8년간 지급 받게 된다.

강수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장은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은퇴농업인에게 의미있는 퇴직 선물을 건넬 수 있어 기쁘다"며 "연이은 가입자를 만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에너지팜' 개관

### 이용자 중심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한빛원자력본부는 31일 "지난 29일 홍보전시관 명칭을 '한빛에너지팜'으로 바꾸고, 지역 소통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종만 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과 언론인들도 함께 참석해 한빛에너지팜의 개관을 축하했다.

지난 1987년 5월 개관 이후 오랜 기간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던 한빛에너지팜은 11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중심 소통 휴게공간(카페, 키즈존 등)을 확대하며 개방형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과학교육 콘텐츠와 체험 공간은 2040 밀레니얼세대와 알파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공간으로 마련했다.

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한빛에너지팜이 영광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서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에너지팜은 무료로 운영(일요일·공휴일 휴관)되며, 30인 이상 단체관람은 한빛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 목포시 "양대체전 대비 숙박업소 재정비"

### 171개소 선별...1숙박업소당 1담당관제 운영

목포시는 "최근 제53회 전국소년체전·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 숙박업소 관리체계 재정비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관내 306개 숙박업소 중 양대체전 선수단·입원진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171개소(5천 704실)를 선별하

고 '1숙박업소-1담당관제'를 운영,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숙소별 담당관은 목포시 산하 전 부서 팀장급으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숙박업소를 매주 방문해 선수단 예약 현황, 영업신고증, 요금표 게시 유무 등 숙박업소의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숙박업소별 지정 담당관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시 보건소 단속반의 추가 점검, 계도, 단속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목포시는 체전 선수단·관계자들의 숙박 예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소별 담당관을 통해 체전 참가 선수, 가족, 관광객 등 사전 예약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광지 주변 식품 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중 200여명의 숙박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석 목포시 보건소장은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숙박업소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